



PROFESSORS' COUNCIL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교수회

# 교수회브리프

제18권 1호 2023학년



교수회 브리프 18권 1호 2023학년. 발행일 2023년 9월 31일

발행인-김정윤, 인쇄-김현범,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김문주·이소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Contents

## 03 Welcome

제2기 교수회를 시작하며 - 세심한 섬김으로 모든  
교수님이 행복한 교수회를 꿈꾸며  
김정윤 교수,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제2기 교수회 회장

## 05 Farewell

이임의 말씀  
김수복 제18대 단국대학교 총장

## 06 Inauguration

'혁신 단국'을 위해 함께 땀시다  
안순철 제19대 단국대학교 총장

## 08 Strategy Session

2023년도 제2기 교수회-대학 간 복지협의체 운영계획  
김현범 교수,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 09 2023학년도 2학기 행사 계획



표지사진: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사진  
공모전 2010년작. 작성자 노정래

# 제2기 교수회를 시작하며, 세심함으로 모든 교수님이 행복한 교수회를 꿈꾸며

코로나 팬데믹의 해제와 함께 시작된 제2기 교수회는 다양한 대면 행사를 진행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단국 혁신 5.0 시대” 새로운 비전과 함께 새 학기를 맞이하며 인사드립니다. 우리 제2기 교수회는 섬세한 섬김으로 우리 대학의 3대 구성원인 교수님들의 작은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의 물줄기에 우리 대학이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각 단과대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당국에 전달하고, 상호친목 도모를 위해 범화산 등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끝내 등산 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석주선기념박물관 관장님의 배려로 박물관을 관람하였습니다. 학교 안에 이렇게 규모가 크고 멋진 박물관이 있음을 참석하신 교수님과 가족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행복하고 희망찬 행사에는 교수회가 늘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죽전·천안 캠퍼스 교직원 식당의 원두커피 서비스를 재개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응원하고자 중간·기말고사 간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축제 기간 사제동행 노래자랑에 1등 경품을 후원하는 등 소통을 위해 다양한 대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브리프>의 행사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에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4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복 전임 총장님께서 이임하셨습니다. 지난 학기 대학의 3주체인 교수대표, 학생대표, 직원대표로 구성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3인을 추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안순철 교수님을 총장으로 추대하셨습니다. 신임 총장님은 우리 대학만의 혁신 DNA로 새 시대를 열어 재정확충과 평판도 개선을 핵심 전략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정통 사학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청사진이 실현되어 내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우리 대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로 인해 구성원들 모두 단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되길 희망합니다.

교수협의회를 계승한 우리 교수회는 새로운 간판을 사무실에 내걸며 교수님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참여와 조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행복한 2학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운 교수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제2기 교수회장

## 檀國大學校教授會

정년하신 방재기 교수님(시각디자인과, 명예교수)께서 저희 교수회의 많은 발전을 기원하시며 직접 글을 써주시고 저희 명패 제작할 수 있도록 손수 벡터이미지 파일로 작업해 주셨습니다. 교수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Contents

## 10 Community News

### 2023년 1학기 교수회 활동

- 2023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 2023학년도 제1차 통합운영위원회의
- 교수 야유회 및 신입교원 환영식
- 스승의날 선물증정
- 신입교원 선물증정
- 동아리 축제, 교수-학생 사제지간 노래대회 후원
- 교수회-여교협 공동주최 특강행사
-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 동아리 활동 후원
-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 생애 첫 보직자 명패전달

## 12 Contribution

비가 오던 그날의 특별한 경험 : 2023 교수야유회후기  
송영균 교수, 치과대학 치의학과

다시 알랭 바디우를 읽는 시간  
오민석 시인·문학평론가, 영미인문학과 명예교수

연필 한자루를 받는 순간 스치는 생각들  
오아미 교수, AI 전자현악과

학생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  
임희주 교수, 자유교양대학

On ChatGPT  
전정호 교수, 경영경제대학, 14대 한국 인력개발학회장

## 21

신임 및 퇴임교원  
상조활동  
교수회 임원 및 운영위원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편집후기 및 기고방법 안내

# 이임의 말씀

4년의 소임을 마치고 이임의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장충식 명예이사장님의 대하소설 제목입니다. 깊은 강은 앞물결과 뒷물결이 끌어주고 밀어주며, 윗물과 아랫물이 한마음으로 합류하면서 대양(大洋)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단국 76년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장충식 명예이사장님, 장호성 이사장님, 법인 이사님들, 교정의 사계(四季)를 함께한 동문·재학생과 교직원 여러분이 '단국(檀國)'이라는 장강(長江)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단국의 도도한 강물에 작은 물살로, 단국 역사의 일원으로 함께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가에서 노심초사하며 지켜봐 준 가족과 지인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쏘아놓은 화살처럼 4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시스템을 갖춘 “교육중심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를 구축하는 데 매진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상황과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고등교육 현실에 직면하면서 잠시 주춤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에도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기희생적 애교심으로 난관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고, 이러한 단국인 여러분의 성원으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국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팬데믹 3년 이후 맞게 된 새로운 일상은 대학 혁신과 융합의 가속적인 변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발전의 동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의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 늘 미래를 향해 함께 날아보자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또한, 단국 건학 정신의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역사관 개관의 꿈을 이루었고, 우리의 역사관은 단국의 주체적 상징이 되어 미래를 날 수 있는 구심력이 되었습니다.

단국 역사관은 대학 혁신과 변화 요구를 추동하는 동력이 되어 <다이나믹 단국 2027>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단국'브랜드 가치 창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링크 3.0 사업과 각종 인재 육성 사업 수주를 비롯한 많은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과 산업과 상생 협약하는 혁신 생태계 거점 대학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수복  
제18대 단국대학교 총장

그리고 2021년부터 올해에 걸쳐, 교육부의 대학 혁신을 요구하는 정책인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바이오헬스 분야와,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의 글로벌·문화 분야 주관 대학으로, 혁신융합대학 사업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IT, BT, CT, 외국어 분야의 캠퍼스 특성화 목표에 한층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속 병원의 암센터 개관과 함께, 충청 권역 암센터로 지정되는 등 우리 대학 병원도 지역 사회 보건의료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 4월에는 국토부, 중기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해 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미래 혁신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의 교육과 연구와 산학협력의 역량은 모든 단국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랑스러운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정은 구국, 자주, 자립의 단국이라는 큰 강이 되었으며, 미래를 선도하며 흘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19대 안순철 총장께서 제안하신 “시대 변화에 부응할 단국대 혁신 버전 5.0 시대를 열어갈 강력한 청사진”에 희망찬 기대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국 구성원 여러분과 단국의 희망과 꿈이 성취될 수 있는 새롭고, 넓고, 깊은 단국의 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스무 살의 단국인에서, 일흔이 된 단국인으로 인생의 큰 영광과 기쁨으로 사는 작은 물결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단국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 '혁신 단국'을 위해 함께 뛰십시오



안순철  
제19대 단국대학교 총장

가을학기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항상 더 나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교수님 모두가 교육과 연구는 물론 개인의 삶에서도 풍성한 성취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9월 7일, 제19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단국 혁신 5.0'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혁신 플랜은 '다이나믹 단국 2027'의 주요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 단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혁신과제를 추진할 것을 다짐했고, 현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의 재정 확충입니다. 재정은 모든 혁신의 기반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어떤 혁신도 이뤄내기 힘듭니다. 산·학·관·연을 묶는 '단국형 산학협력 쿼드'를 구축해 '대형 산학협력 대학'으로 성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의 키워드는 '지역 혁신'입니다. 지자체-산업-대학-연구소가 연계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새로운 대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정부의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은 총예산 규모만 2조가 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 지역혁신사업을 우리 대학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며, 경기도와 충남도는 물론 국회,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만 동문의 협력과 공헌을 끌어내고자 직접 찾아가고 있으며, 발전 기금 모금을 위한 전략과 체계적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금 모금은 총장의 첫 번째 임무이자 마지막 임무라는 각오로 댈 것입니다.

둘째, 교육과 연구의 혁신입니다. 이는 대학의 고유한 사명이자 존립 근거입니다. 대학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갖출 때, 비로소 대학다운 대학이 됩니다. 새로운 지식 가치 창조와 역량 있는 인재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 대학의 우수한 학문적 능력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죽전과 천안, 천안과 죽전이 긴밀히 연결되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단국대학교 아너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세계 중심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융복합 전공도 확장할 것입니다. 학과와 전공의 벽에 가로막힌, 전문화된 단일 지식만으로는 복잡다단한 환경이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융복합 지식과 응용 능력, 세상을 바꾸는 질문을 제시할 능력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그야말로 '잘 가르치는 단국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체형 책걸상을 분리형 책걸상으로 전면 교체해서 재학생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자유로운 토론 등이 가능한 '능동형 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입시와 학사일정을 고려하되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등 전체 건물을 둘러보았고 활용되지 못하는 숨어있는 공간을 찾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일도 진행 중입니다.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야외휴게실 보수, 해당관 및 대학원동 앞마당 조성 등 '공부와 쉬'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낡고 위험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곡기념도서관, 인문과학관, 체육관 등 (이상 천안캠퍼스) 노후로 인한 방수층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방수공사를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율곡기념도서관 냉난방기도 교체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죽전캠퍼스 야외도서관도 곧 공사가 마무리되면 ('23년 12월 예정) 교수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공부와 놀이, 대학인으로서의 삶'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언제나 머물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글로벌 대학의 실질과 위상의 재정립입니다. 'DKU 국제대학' 플랜은 이를 달성할 핵심입니다. 모바일 시스템 등 첨단과학은 물론 한국학 전공을 신설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국제대학이 아니라, 단국의 전통과 색깔이 살아 숨 쉬는 대학, "단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제대로 보이는 단국만의 국제대학을 만들겠습니다. 해외연구소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순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대외부총장이 이끄는 T/F를 구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 좁은 울타리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단국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비전과 전략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전과 전략이 실제로 달성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성원 모두의 공유와 동의, 그리고 단합된 힘입니다. 비전과 전략은 총장 혼자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지지할 때 비로소 실천적인 것이 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한 단계 높은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는 '통 큰 단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단국인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계속되는 험난한 위기 앞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통사학의 역사를 써왔던 대한민국의 대표 사학이 바로 단국대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총장의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총의를 모아 성과가 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규범과 상식에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대학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공정 경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의 목표인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위대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역사적인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더 커야 합니다. 다른 대학이 한 걸음 갈 때 우리는 열 걸음 뛰어갈 각오로 노력해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과 냉소, 불신을 극복하고 '혁신 단국'을 위해 함께 뛰시다. 76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단국대학교를 혁신하는 가슴 벅찬 과업에, 교수님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과 삶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제2기

#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운영계획



김현범 교수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제1기 교수회의 발의를 통해 처음 도입된 교수회-대학 간 복지협의체는 교수회와 대학본부 양자 간 효율적이며 체계화된 소통 채널을 정례화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해와 배려라는 덕목을 기반으로 운영되온 복지협의체는 현재 우리 대학의 교원과 대학 간 대표적인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정착된 상황입니다.

제1기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학연구비 예산 증액, 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해외 출장 항공운임 2등석 사용 인정, 방학 중 교원 해외여행 기간 30일 제한 폐지 및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실행 되었습니다.

저희 제2기 교수회 또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복지협의체를 통해 대학본부와 논의하며 제시된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복지협의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논의할 내용들은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다음의 사안들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경우 대학원수업을 책임시수로 3학점 이상 인정
- 전국단위 경기에 출전하는 감독(코치) 수행 지도교수의 출장비 지원 및 수상에 따른 연구점수 반영
- 교내 주차관리 체계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학생주차구역 지정 등)
-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에 따른 예산절감액에 상응하는 대학 학자금 지원 증액
- 외부과제수주 연구실적의 연구장려금 100%인정 (현행 50%인정)
- 국제저널 온라인 발행일자 기준으로 연구실적 인정 (대다수 대학들 도입)

최근 저희 대학 공동체는 “단국 혁신 5.0시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진보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제2기 교수회는 새롭게 도약하는 대학과 더불어 복지협의체를 공동 운영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이 신속 정확하게 대학측에 전달되어 논의되고 대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성공적 정착을 위해 헌신해 주신 대학본부, 제1기 교수회 임원진 그리고 교수회 구성원이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발전된 형태의 복지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2기 교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학년도 2학기 행사 계획

### 10월

통합운영위원회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오후 4시~5시30분

장소: 죽전캠퍼스 범정관 5층 대회의실

신임교원 환영 선물증정

### 11월

여교협 추천행사 - "도자기 장신구 만들기"

일시: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30분

장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소프트웨어ICT관 206호  
교수연구실에서 운동 - 체육대학 김기홍 교수 특강

일시: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김기홍 교수 연구실 (Zoom 실시간 방송)

# 2023년 1학기 교수회 활동

## 2023학년도 1학기 정년퇴임식



사진: (왼쪽 첫번째) 김정윤 교수회 회장, (중앙) 김수복 총장님과 2023학년도 1학기 정년퇴임식 참석자들

2023년 8월 24일,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2023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정년퇴임 교원에게 축하 화환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 2023학년도 제1차 통합운영위원회의



사진: (왼쪽부터) 임유미 지회사무국장,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정치영 지회부회장, 오세행 감사, 김정윤 회장, 임수경 감사, 박영준 부회장 외 운영위원

2023년 3월 30일 죽전캠퍼스 범정관 505호 대회의실에서 제1차 통합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초대 교수회 조한승 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교수회 출범을 맞아 부회장 및 사무국장, 지회 사무국장을 정했습니다. 2023학년도 교수회 활동을 계획하고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 교수 야유회 및 신입교원 환영식



사진: (왼쪽부터)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임유미 지회사무국장, 김정윤 회장, 박영준 부회장, 임수경 감사, 오세형 감사

2023년 4월 29일에는 ‘교수 야유회 및 신입교원 환영식’이 우천으로 인해 등반대회 대신 ‘석주선 기념 박물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신입교원과 많은 교수님들과 동반한 가족들이 참여한 이번 야유회는 이종수 박물관장님 도움으로 고고미술관과 기수연 학예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 가족들을 위한 토기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체험활동과 푸짐한 경품행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영균, 오아미 교수님의 행사 후기를 참조하세요.

## 동아리 축제, 교수 - 학생 사제지간 노래대회 '판타스틱 듀오' 상품 후원



사진 : 교수·학생 사제지간 노래대회 1등팀 'D-ROCs' 공연 모습

5월 19일에는 천안캠퍼스에서 교수-학생 사제지간 노래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상품 협찬으로 최신형 아이패드와 팬슬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1등의 영애는 학군단장님과 학군들 학생들의 락그룹 'D-ROCs'에게 돌아갔습니다.

## 스승의날 선물 증정



사진: 여행용 다기와 녹차세트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도예과 김병울 교수님의 추천으로 선비들이 여행시 사용하던 분위기의 멋스러운 여행용 다기세트와 보성녹차(중작)를 배포했습니다.

## 신입교원 선물 증정

교수회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신입 교원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교수회-여교협 공동주최 특강행사



사진: (앞줄 왼쪽부터) 교수회 정치영 지회부회장, 여교협 이지숙 회장  
(뒷줄 왼쪽부터) 교수회 김정윤 회장, 임유미 지회사무국장, 특강 강사 김도형



2023년 5월 31일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실습실에서 가죽공예 특강과 함께 실습으로 고급가죽 지갑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 1학기 중간고사



사진: 왼편: 천안(오른쪽 앞부터) 교수회 김정윤 회장, 정치영 지회부회장, 임유미 지회사무국장,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오세행 감사  
오른편: 죽전 (오른쪽 앞부터) 교수회 김정윤 회장, 임수경 감사, 박영준 부회장

2023년 4월 17일 울곡기념도서관(천안)앞 등나무 벤치에서 120개의 햄버거(큰사이즈 치즈버거, 프랭크)와 콜라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서 행사 15분전부터 긴 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달을 시작하자 5분만에 동이났습니다. 다음날 2023년 4월 18일 해당관(죽전)앞 등나무 벤치앞에서 햄버거 세트 120개를 교수회 운영위원 교수님들과 함께 전달했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후원



사진 : 단국대학교 춘계 교직원 테니스 대회  
2023년 6월 10일 죽전캠퍼스 테니스장에서 개최한 교직원 테니스회에서는 이상섭, 이병인, 양희석, 정용태, 최수용 교수님, 김용갑 직원선생님팀이 우승하였으며, 이 행사에 교수회에서는 50만원 상금을 후원하였습니다.

## 교수회 시험기간 간식행사



사진 : 왼편: (왼쪽 앞부터) 교수회 김정운 회장, 김태수 교수, 전은화 교수, 박영선 교수

오른편: (왼쪽부터) 교수회 김현범 총괄사무국장, 정치영 지회부회장, 김정운 회장, 임유미 지회사무국장, 오세행 감사

2023년 6월 13일(죽전) 해당관앞에서 햄버거와 콜라 세트 120개를 기말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성과 얻으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2일(천안) 율곡기념도서관 등나무 앞에서 120개의 햄버거 세트를 운영위원 교수님들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날은 기다리고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번호표를 미리 교부했습니다.

## 생애 첫 보직자 명패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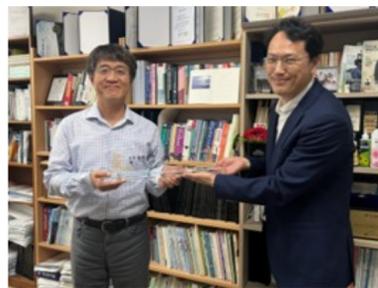


사진 : (왼쪽 위에서 아래로) 김오영 교학부총장, 민동원 취창업지원처 처장, 송병구 학생처 처장,

(중앙 위에서 아래로) 조성용 법과대학 학장, 조완제 산학협력단 단장, 조한승 국제처 처장,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최성경 대학원 교학처 처장, 최종무 SW융합대학 학장, 한경근 특수교육대학원 원장

교수회에는 생애 첫 보직(교무위원급)을 맡으신 교수님께 전체교수님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진의 9분 교수님께는 명패를 전달하고, 명패를 있으신 오좌섭 산학부총장, 장철준 입학처 처장, 전은화 미래교육혁신원 원장님께는 화분을 전달했습니다.

# 비가 오던 그날의 특별한 경험 : 2023 교수야유회후기



송영균 교수  
치과대학 치의학과

몇일간 햇빛이 무섭게 내리 쬐더니, 오늘은 시원한 비가 캠퍼스를 적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에 비가 내리던 교수야유회겸 신입교수 환영식을 회상해 보려 합니다. 전날까지 날씨가 정말 좋았지만, 당일에는 교수회에서 준비했던 플랜 B를 사용해야 할 만큼 비가 꽤 내렸습니다. 기대했던 법화산의 진달래는 보지 못하였지만, 아이들의 바람이었던, 박물관에서의 체험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학교로 향하였습니다. “이정도면 등산은 가능하겠는데?” 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천안에서 출발한 버스가 죽전을 향해 갈 수록 점점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죽전캠퍼스에 들어선 버스는 석주선기념박물관앞에 정차를 하였습니다. 맑은 날의 야유회를 기대했던 두 딸들은 버스안에서는 풀이 죽은 듯한 모습이었지만, 버스에서 내려서 박물관과 학교건물에 대한 질문을 떠들썩하게 늘어 놓았습니다. 아마, 학교안에 이렇게 큰 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나 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사무국 조교님들이 따뜻한 커피와 아이들을 위한 사탕 꾸러미로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등산일정은 없이 박물관관람과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진행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인원이 많아지면서, 고고미술관 로비는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오가는 담소로 가득 찼습니다. 총장님의 인사말씀과 신입교수님들의 인사 및 기념촬영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의 민속복식관 이층으로 체험활동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박물관 관람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문 해설을 들으며 박물관 관람을 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백제의 고도인 공주에서 살고 있는 저이지만, 요즘 박물관은 오디오시스템으로 일방적인 해설만 듣는 경우가 많아 질문하고 답을 듣는 해설을 경험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유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진: 우천으로 인해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진행된 교수야유회 및 신입교원 환영식 기념사진

해설을 듣다가 두 딸들만 보낸 체험행사장에 가 보았습니다. 민속복식관 2층에서 진행된 체험행사에 들어가보니 아이들이 흙으로 도자기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미 부채를 이용한 작품들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온 지도 모르고 작품 활동에 열심인 아이들을 불러 보니, 입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좀 더 있다가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너나 할 것없이 모든 아이들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느라 분주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모양을 만드느라 흙을 두드리고, 모양을 내느라 도장도 찍고... 좀 전에 로비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분주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니, 해설은 자리를 옮겨 민속복식관 1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평윤씨 소년 미라였습니다. 실물 미라는 저도 여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350여년이 지나서 형체 그대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내려온 아이들도 미라를 가장 신기해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KBS 역사스페셜을 찾아서 함께 보았는데 직접 본 미라라며 집중하는 모습이 기특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치고, 교직원 식당으로 옮겨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풍족한 식사를 마칠 때 즈음 기대하던 경품추첨시간이 다가왔고 팽이 없는 경품 추첨으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스티커 다이어리와 연키트를 받고 너무 즐거워하였습니다.



사진: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



사진: 도자기 만들기 체험



사진: 행사후 교직원식당 (대학원동, 죽전)점심식사와 경품행사

# 다시 알랭 바디우를 읽는 시간



오민석  
시인·문학평론가  
영미인문학과 명예교수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 원래의 이름 앞에 새로운 이름이 여럿 붙었다. 하나는 ‘명예 백수’라는 거다. 직장에서 나왔으니 ‘백수’라는 말은 옳다. 그래도 명예로운 백수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다른 이름은 ‘연금술사’이다. 연금을 받아 술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말에는 은근히 술값 내라는 압력이 스며있다. 또 하나는 ‘지공거사’라는 이름이다. 65세가 넘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아직 신청을 안 했으니 상관은 없으나 곧 ‘거사’가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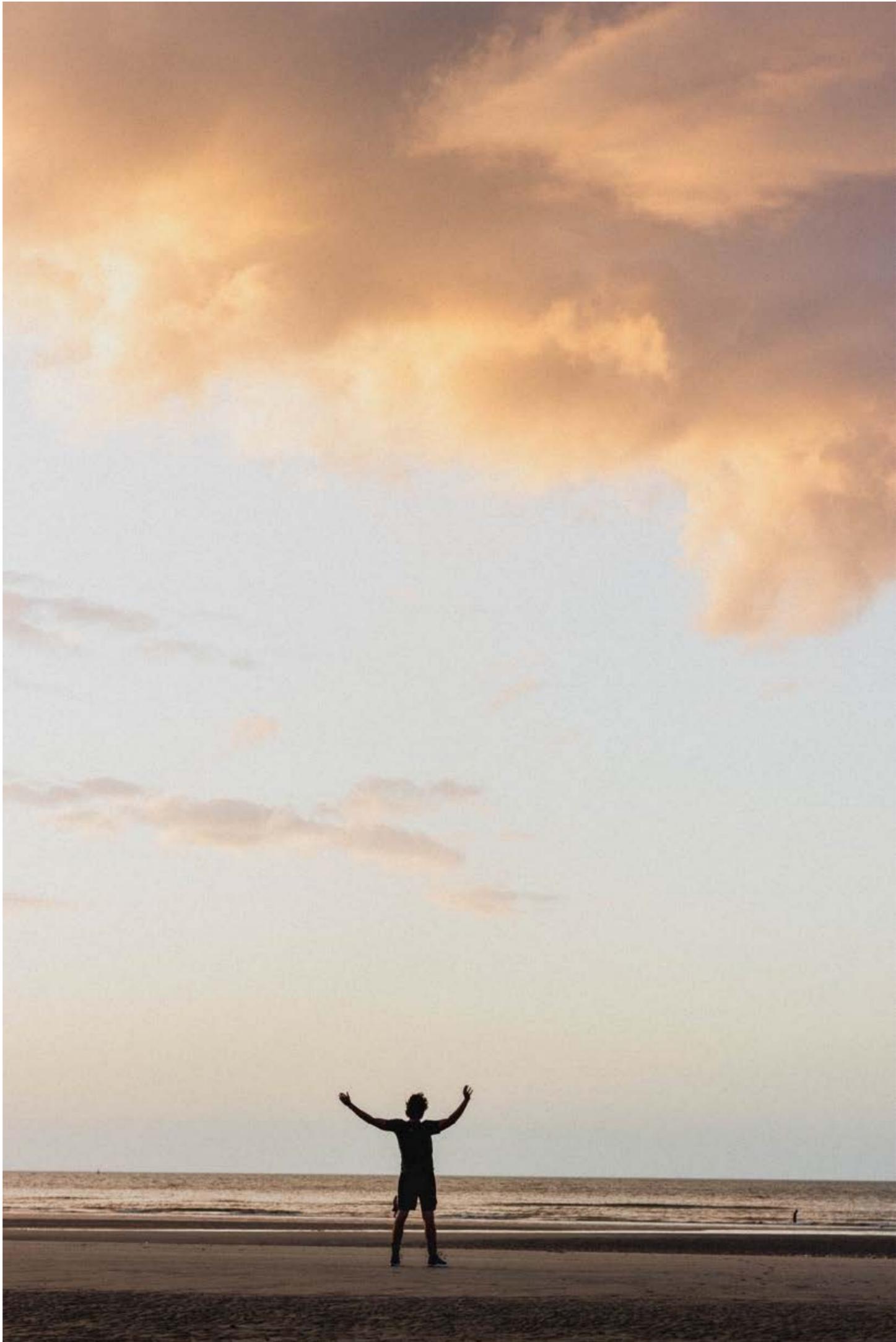
어쨌든 정년 퇴임이란 개인에 따라 의미가 있는 ‘사건’임에 틀림 없다. 무슨 일이든 ‘사건’이 되려면 그것이 일어나기 전과 후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단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사건’이 아니다.

알랭 바디우A. Badiou에 따르면 ‘사건’이란 “진정한 변화, 즉 존재의 강도intensity를 실제로 바꾸는 변화”를 의미한다.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 이전에 비존재 혹은 잠재태로 존재하던 대안이 새로운 현실로 나타나고, 감추어진 진리가 노출되며, 존재는 그 앞에서 새로운 주체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바디우는 사건을 “새로운 주체화의 과정을 위한 첫 스파크”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사건 앞의 주체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주체가 새로운 대안과 진실 앞에 노출될 때 주체는 변화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바디우는 주체화 과정 혹은 “진리 절차”라고 불렀다.

바디우가 볼 때, 사건과 진리 절차가 발생하는 자리는 크게, 예술, 사랑, 과학, 그리고 정치의 네 가지 영역이다. 가령 사랑의 영역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은 주체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안으로서의) 현재를 제공하고, 주체는 과거를 뒤로 물리며 위기와 새로움으로 가득 찬 현재에 자신을 맞춰 나간다. 그리하여 사건으로서의 사랑(예술, 과학, 정치)은 불가능했던 혹은 잠재적이었던 것의 새로운 출현이며, 위험이며, 모험이다. 진정한 주체는 위험과 모험을 감수한다. 오로지 그러할 때만, 사건 속의 진리가 현실화된다.

바디우의 ‘진리 절차’ 운운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에게도 정년 퇴임은 ‘사건’이다. 정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 내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과 환경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세상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의무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세상에, 그렇게 안 해도 누군가에게 술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연금술사)니. 다행스럽게도 나에게 아직도 변함없는 건강이 있다니. (인명재천이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긴 시간이 아직 내 앞에 펼쳐져 있다니. 세상에,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잖아.

나는 요즘 서툰 사랑을 시작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달콤하며 불안하다. 불투명해서 미래가 온통 새로운 청년처럼, 나는 정년 후에 새로운 주체화의 과정에 들어섰다. 나는 이전과는 다른 그 무엇이 되고 있다. 그것은 정년 이전의 내가 전혀 겪을 수 없었던 것이며, 정년 이전에 내게 비존재 혹은 잠재성의 상태로 있던 것이 존재 안으로 터져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 정년을 무슨 슬픈 고별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게다가 사건들은 개념이 아니라 물질인 몸과 언어로 온다. 대박 아닌가.



# 연필 한자루를 받는 순간 스치는 생각들...



오아미 교수  
AI 전자현악과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1일 문화예술대학원 AI 전자현악과 신입교원으로 임용된 오아미입니다. 한학기동안 정신없이 학교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학교의 많은 행사에 다니며 신입교원으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교수님들과 신입교원들이 함께하는 야유회도 참여하였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공식적인 행사자리는 처음이었던지라 설레는 마음으로 모이는 장소였던 석주선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신입교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혼자 물끄러미 서있으니 많은 선배교수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첼로를 전공하여 무대에서 그저 상대방의 관객들을 바라보며 눈빛과 웃음을 교환하는 것이 익숙한 저에게 야유회는 상당히 낯설었지만 그럭저럭 잘 참여하는 제 모습을 보며 내심 으쓱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선배교수님들과 인사 및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입교원들의 인사가 끝나갈 즈음, 교수협의회 회장님께서 신입교원들에게 연필한자루를 주셨습니다.

연필한자루..  
이 연필한자루를 받는 순간 스치는 생각들...

교수님들과 점심을 맛있게 먹고 야유회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전임교원으로 배정받은 1인 연구실에 앉아 쪽 둘러보며 숨고르기를 해봅니다. 열정넘치는 학생들과 관록이 묻어나는 교수님들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직원여러분들과 함께 단국대의 일원이 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갈 미래를 그려보며 야유회 후기를 마칩니다.



AI전자현악전공은 국내 최초 신설학과로 메타버스 캠퍼스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수업을 도입하여 전자현악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전자현악(전자첼로, 전자바이올린, 전자 비올라, 전자더블베이스, 전자피아노 및 건반) 실기 수업과 인공지능 학습을 병행하여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을 기초로 학문적 깊이를 다루고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융합을 통해 이 시대에 걸맞는 음악의 다각화와 퍼포먼스의 화려함을 갖춘 연주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학과입니다.



# 학생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

임용이 된 후 첫 학기 2023년 1학기에는 학생들과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설렘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유교양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과 특성상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한 대학 새내기들과 함께 소통하다 보면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교양대학에서 교양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들은 코로나 시기 동안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잘 참여하고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관심 분야이기도 한 교육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교육과정개발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온라인 교육도구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교육현장에서도 챗지피티(ChatGPT), 바드(Bard) 등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챗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은 교육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표절이나 창의성 저하 등의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학습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수법을 연구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하여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높이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학점을 얻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정보나 사고를 확장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외국어 학습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연결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대학 신입생들과 수업 하고 있기에, 우리 대학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에게 단국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학생들에게 여러 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임희주 교수  
자유교양대학

# On ChatGPT



전정호 교수  
경영경제대학  
14대 한국 인력개발학회 회장

ChatGPT의 시대가 열렸다. 이 전에도 알파고처럼 특정한 분야에 뛰어난 인공지능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모든 분야에 대화가 가능하고 모든 것에 대해 해박한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은 처음이다. 특히 ChatGPT는 정해진 답변을 반복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대화자의 피드백과 질문에 따라 답변을 달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ChatGPT는 스토리 라인만 주면 소설도 작성할 수 있고 음악도 작곡할 수 있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광고나 강의, 변론도 할 수 있다. 만능 인공지능의 등장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한편으로는 전문직들조차도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인간의 능력이 인공지능에 종속되지 않을까 등 다양한 상상으로 괴로워 하거나 즐거워 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hatGPT의 인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로, 인간의 인식은 자신이 몸소 겪은 경험을 반영한다. 인간이 만드는 텍스트에는 텍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컨텍스트, 시공간적 맥락이 존재한다. 인간은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경험과 대조하며 수정, 변형해 나간다. 언어는 1차적 경험이 낳은 2차적 경험이다. 철학자 Dewey가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성장한다. 이에 반해, ChatGPT는 초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이지만, 텍스트만을 학습했기에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이 산출한 텍스트를 검증할 비언어적 경험이 부재하다. 인간에게는 몸이 있지만 인공지능에게는 몸이 없기 때문이다. 몸이 없기 때문에 인식 자체의 뿌리가 없고, 인간의 피드백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미의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거나 인간의 주장을 꼬리를 내리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로, ChatGPT는 인간이 일을 던져 주면 무척 잘해 내는 뛰어난 역량의 소유자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Microsoft는 ChatGPT에 부조종사라는 의미로 co-pilot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다시 말해 ChatGPT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탐색하는 자기 주도성이 없고 호기심이 없다. 과거에 인간이 하던 일을 ChatGPT가 대신 해 주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은 그동안 정답을 생산하는 교육이었다.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ChatGPT처럼 효율적으로 답안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역할은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조종사 역할을 하는 인간은 이제 그런 능력보다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정답을 잘 찾는 기계적인 인류는 도태될 것이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ChatGPT가 자신의 일을 빼앗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잘 던지는 인류에게 ChatGPT는 복음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에 익숙한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불안감을 느낄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답을 잘 찾는 능력보다는 좋은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자들이 인재로 대접받는 세상이 도래했다.

# 신임 및 퇴임교원

교수회에서는 신임교원에게는 축전과 선물, 퇴임교원에게는 꽃다발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퇴직자

오재인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신상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경환 (공과대학)  
 오승록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윤용수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이계성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우진운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윤명원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이상덕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김유혁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임흥빈 (과학기술대학 화학과)  
 이기호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이성규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안희진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장영표 (의과대학 의학과)  
 이경규 (의과대학 의학과)  
 이종현 (치과대학 치의예과)

## 2023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

정아름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라수현 (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김정택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변철우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천후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구남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박민수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탁경재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김민규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조남수 (SW융합대학 산업보안학과)  
 정선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문세영 (과학기술대학)  
 주형국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  
 조성원 (과학기술대학 경영공학과)  
 백창기 (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이남규 (생명공학대학 의생명공학부)  
 조정현 (생명공학대학 제약공학과)  
 정유나 (의과대학 의학과)  
 신혜림 (의과대학 의학과)  
 김경욱 (의과대학 의학과)  
 정인호 (의과대학 의학과)  
 추현식 (간호대학 간호학과)  
 이동준 (치과대학 치의예과)  
 호명진 (약학대학 약학과)  
 신유호 (정책경영대학원)  
 라젠드라 쿠마르 싱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육영삼 (자유교양대학)

# 상조활동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경조사에 화환, 축의금,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부고

임상혁 교수(경영경제대학) 부친상  
 김옥성 교수(문과대학) 부친상  
 류지성 교수(사회과학대학) 부친상  
 함영준 교수(외국어대학) 모친상  
 조용범 교수(치과대학) 부친상  
 진윤희 교수(행정법무대학원) 부친상  
 손연아 교수(사범대학) 시모상  
 이동현 교수(공과대학) 자녀상  
 이영림 교수(공공·보건과학대학) 남편상  
 이석준 교수(스포츠과학대학원) 빙부상  
 오민석 교수(문과대학) 부친상  
 김재경 교수(공공·보건과학대학) 모친상  
 안용현 교수(과학기술대학) 장인상

김재일 교수(사회과학대학) 부친상  
 김연진 교수(문과대학) 부친상  
 김현수 교수(사회과학대학) 부친상  
 이용원 교수(의과대학) 빙부상  
 강현석 교수(외국어대학) 빙부상  
 서주희 교수(의과대학) 시부상  
 이승광 교수(SW융합대학) 모친상  
 지성철 교수(공과대학) 빙모상  
 김지태 교수(스포츠과학대학) 빙모상  
 오세종 교수(SW융합대학) 빙모상  
 이상훈 교수(자유교양대학) 모친상  
 김현수 교수(공과대학) 빙부상  
 장세원 교수(외국어대학) 부친상

# 교수회 임원 및 운영 위원

## 교수회 임원

회장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김정윤	☎ 천안 3423	✉ jeongyunkim@dankook.ac.kr	자연과학2관 809
부회장	법과대학 법학과 박영준	☎ 죽전 1569	✉ yjpark@dankook.ac.kr	법학관 538
	음악·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 천안 3721	✉ casskiss@dankook.ac.kr	예술관 112
사무국장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 천안 3653	✉ hbkim@dankook.ac.kr	생명자원과학관 404
지회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은주	☎ 죽전 3217	✉ elim@dankook.ac.kr	ICT관 124
사무국장	간호대학 간호학과 임유미	☎ 천안 3882	✉ ymim@dankook.ac.kr	실험연구동 205
감사	자유교육대학 임수경	☎ 죽전 3775	✉ totorolsk@dankook.ac.kr	상경관 618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오세행	☎ 천안 1257	✉ seheangoh@dankook.ac.kr	약학관 311
여교협회장	공공·보건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지숙	☎ 천안 3242	✉ jeesook@dankook.ac.kr	사회과학관 323

## 교수회 운영위원

### 죽전캠퍼스 운영위원 (24명)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권진옥 영미인문학과 위혜경
법과대학	법학과 박영준 법학과 정해상
사회과학대학	도시부동산학부 박승훈 커뮤니케이션학부 전종우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이지수 경영학부 문보영 경영학부 이기광 경영학부 전정호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장우영 건축학부 이경구 건축학부 흥경구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이상범 컴퓨터공학과 박경신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은주 체육교육과 최형준
음악·예술대학	도예과 김병율 음악학부 김난희 음악학부 이수진
자유교양대학	유혜원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연수 교육학과 박명선 행정법무대학원 이환수

### 천안캠퍼스 운영위원 (24명)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등학부 류병재 아시아중등학부 송상현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심상길 물리학과 경지수 식품공학과 이형재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환경원예조경학부 채원병
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문예창작과 김태수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이병관
의과대학	의예과 김학림 의학과 민준원 의학과 조경진
공공·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이상임 심리치료학과 김민선
간호대학	간호학과 임유미
치과대학	치의예과 이성훈 치의학과 송영균 치의학과 한미란
약학대학	약학과 강명주
자유교양대학	장유정 차민영
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고경호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양희석

##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죽전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 031-8005-2894 김문주 조교  
천안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119 인문과학관 244호 ☎ 041-550-1553 이소현 조교  
이메일 : prof@dankook.ac.kr 웹사이트: <https://cms.dankook.ac.kr/web/professor>

## 편지집행기 및 기고 방법 안내



이지수 교수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교수회 브리프> 제18권 1호는 단국대 교수회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담고자 합니다. 2기 교수회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교수회 브리프>를 빛내주신 전임 총장님과 신임 총장님의 기고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교수회 브리프>도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교수회 브리프>는 교수님들의 참여로 더욱 신선하고 풍부해집니다. 교수님들의 글과 사연, 사진, 맛집소개와 소소한 일상,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교수회 사무국 이메일(prof@dankook.ac.kr)로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투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수회 브리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수회브리프 18권 1호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발행인-김정윤, 인쇄-김현범,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김문주·이소현 조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